

고난 중에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이사야 40:31, 베드로전서 5:10

정윤돈 목사님

* 사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 벰전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지, 정, 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언약주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성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망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내가 있는 현장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도마같이 의심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의심했었다. 그래서 노트에 의문이 드는 점들을 적었다. 성경구절도 다 찾아봤다. 그런데 나중에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방향이 되는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은 기준이 되고 깨달음을 준다.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주일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성공이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국 생각하는대로 응답이 오더라. 마음과 결단이다. 지금 저는 70현장과 70 나라에 가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다. 전교 1등 못하는 이유는 전교 1등을 하려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여야겠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망하는 회사는 숫자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흥하는 기업은 5년과 100년 후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계획을 세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선교사님 중에는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환경도 어렵고 미래가 없을 때가 있다. 고난의 여정이다. 여러분은 ‘영적 독립군’이 되어야 한다. 독립군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길에서 자고 도망다니면서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걱정했다면 생명걸고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모두 영적 독립군이 되시기 바란다. 독립군은 나의 자녀, 가정, 삶, 사업을 위해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다. 우리는 영적 최전방에 있는 진리특공대다. 똑같은 전쟁이어도 최전방과 후방부대는 다르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며 목숨 걸고 전방에서 싸워야겠다. 복음 가진 우리가 지면 한국교회 다 망한다. 우리가 승리하면 모두가 혜택을 본다. 언약의 여정이 말은 좋지만 여러분이 막상 언약

의 여정을 가보면 광야이고 노예, 포로, 속국의 길이다. 이때 고생하면서 상처받고 믿음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읊처럼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정말 절망했을 때 진정으로 신을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독치유 12 단계 중 1단계가 중독에 대해 완전히 손을 드는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손을 든 사람들이 중독자 중 5%가 안 된다. 중독자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는다. 절대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최고의 천명을 붙잡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 정금이 되어야지, 상처를 받고 믿음이 망가지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야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난과 문제를 주신 이유를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신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무 것도 두렵지 않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로마정복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를 쓴 것이다. 앞으로 고난이 많지만 넘어지지 말고 교회를 지키라는 말이다. 먼저 기독교인을 핍박한 10명의 로마 황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초대교회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여러 로마 황제들에 의해 일어났다. 그중에서 10명의 황제들은 특히 유명한 박해를 주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네로는 로마 대제 이후 기독교인들에게 화제의 책임을 전가하며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다.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했으며, 이들은 원형경기장에서 야생동물에게 희생되거나 화형에 처해졌다. 이후로 ② 도미티아누스, ③ 트리아누스, ④ 하드리아누스, ⑤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⑥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박해가 더 강화되었다. ⑦ 세베루스 황제는 202년에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 칙령은 유대교와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독교를 믿기는 믿어도 전도는 하지 말라는 말이다. ⑧ 데키우스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을 박해했다. ⑨ 발레리아누스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했으며,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금지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처형했고 기독교 모임을 금지해 이때 본격적으로 카타콤이 생기게 되었다. ⑩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기는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일어난 시기로, 기독교인들의 서적을 소각하고, 교회를 파괴했으며,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드릴 것을 강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고 10년 후인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었다. 39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이 이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절대인 약 가진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만 있어도 언약의 흐름은 이어진다. 이런 미래를 두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베드로다.

1.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아주 훌륭했던 인격과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목사님들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데 제가 대학사역 할 때 보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바뀌더라.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다. 변한 것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안다. 부모님도, 형제도 부족한 점 많을 수 있다. 교회도 부족하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영적으로 같고 정말해서 찾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격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치유, 성격치유, 삶치유되기 위해서 미션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 사역하려고 하면 결국 소진된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복음이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한다. 말씀이 기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계가 온다. 한계가 오면 부러진다. 모든 인생을 온전하신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시기 바란다. 성령인도는 강물따라 흐르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절대주권을 믿는 것이다. 문제가 있을수록 나를 향한 축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지 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일이다.

(1) 베드로는 교육 수준과 학문이 높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 받았다. 베드로도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두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자기 열등감'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하고 있다.

(2) 베드로의 직업도 어부로 대단하지 못했고

(3) 신중함이 없고 즉흥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건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기도 하였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물을 걸든가 가만히 있든가 해야 하는데 굳이 가서 빠진다. 베드로는 만사를 이렇게 했던 인물이다.

(4) 또한 베드로는 책임감도 없고 신중함도 없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며 한 사람이 팔리라 했는데 이 와중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팔겠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하게 쓰실 것이다.

(5) 성격도 급하고 철없이 나서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고 귀를 자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변에도 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역의 삶을 살기 바란다. 그래서 강단과 하나님과 복음이 중요하다.

(6) 베드로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들키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7) 그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랬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권위도 없는 사람이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절대사명보다 사람의 눈치보다가 사도 바울에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역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고 지적받았다.

(8)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신앙고백을 하였지만 사실 칭찬을 받기는커녕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 고백 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진정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었다. 결국 예수님 죽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 복음이 정리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된다. 구원의 길과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정리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 여러분의 방향은 전도할 수 없는 모습에서 전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어야 한다.

(9) 베드로는 단순하고 기억력도 좋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인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음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보통 물에 뛰어 들 때는 옷을 벗고 뛰어 드는데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든다.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연약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서 사명감당할 때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다.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경솔했던 사람이 신중한 사람으로 변했다. 무시당했던 사람이, 존경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났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 받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 약 30년이 지나서 순교를 앞두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인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했지만 베드로서

와 같이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책을 썼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밖이 비친 그림자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굴 밖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실체들이 있고, 실체를 비추는 태양 빛, 진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과 오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데아가 있다. 그리고 그걸 비추는 진리, 절대자가 있다. 베드로는 나타나는 현상만 봤었지만 나중에는 실체를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2. 베드로전서 성경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베드로전서는 4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① 첫째는 고난 중의 소망이다. ② 두 번째 성도의 삶과 행실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오히려 더 거룩해지라고 말한다. 순교할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더 온전하게 교회와 삶을 지키라고 말한다. ③ 세 번째는 교회의 역할이다. ④ 네 번째는 말세에 대한 교훈이다.

(1) 1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리해 주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알고 있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영세 전에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2) 1장 3절에서는 부활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 베드로도 거듭났는데, 이 말씀에서 부활과 거듭남을 연결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다.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과 생명이 거듭나고, 삶에서는 당연한 거듭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3) 또한 베드로 사도는 1장 4절에서 성도들이 받을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따라 전도자의 삶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간다면 축복을 주실 것이다.

(4)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 잠깐에 속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5)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끝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다. 우리가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어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원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다. 은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굳게 서시기 바란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만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만대를 보겠다. ① 성삼위 하나님이 ② 하늘 보좌에 계시다. ③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④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력이 필요하다. ⑤ 그래야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⑥ 흑암을 꺾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CVDIP를 성취할 수 있고 ⑦ 결국 3단계를 능가하는 금도 일시대와 세 가지 뜰도 세팅할 수 있다. 이 땅대에 주역되시기 바란다.

끝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어, 로마와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당대, 선교당대, 치유당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의 삶을 통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연약함이든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변화되고 거듭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와 후대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